

목포, 친환경선박산업 메카 새단장

남항서 전기선박 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12월 진수식...집적클러스터 고용·경제 효과

목포시가 친환경선박산업으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해가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일컬어질 정도로 심각한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산업 각 분야에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선박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처럼 전기선박이 해법으로 떠올랐다. 전기 선박은 100% 전기만을 사용해 기존 디젤 엔진과 다르게 미세먼지, 매연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기존 LNG에 무탄소연료인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합한 친환경 연료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전세계적

이어서 전세계 조선·해운시장은 유류선박에서 친환경선박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세계 시장 규모가 270조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친환경선박은 유망한 산업으로 한국은 목포 남항을 신산업의 터전으로 낙점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권은 1,100여척의 중소형 선박이 운항 중이며, 특히 국내 연안여객선 운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선박을 연구·개발·실증하는데 최적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사업(450억원), 친환

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496억원) 등 2개의 공모사업이 목포에서 추진 중이다.

특히 전기 추진 선박은 오는 12월 목포 앞바다에서 진수식을 가질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태다.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산업 생태계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난 7월 정부와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등 대학,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 한국선급 등 2개 공공기관, 26개 조선·기자재·해운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앞으로 남항 부지 3만2,500㎡에 친환경경선박산업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가 들어설 계획으로 내년 초 착공해 오는 2023년 초에는 연구·시험·인증 등을 위한 모든 물적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인프라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선박해양분야 유일의 정부출연연구소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본부'가 설립돼 연구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석·박사학위과정(그린모빌리티 전공)이 본격적으로 운영돼 2024년에는 1기 졸업생이 목포에서 배출된다.

이처럼 친환경선박산업 전반을 집적하는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4만 9,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조 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식목포시장은 "친환경선박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대단히 큰 분야로 목포의 확실한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다"며 "친환경선박산업이 목포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담양 담주마을 주민들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벽화를 그리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온 힘

담양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부터 주민주도로 마을 사업을 계획해 총 46개 마을을 으뜸마을로 선정, 마을당 300만원씩 3년간 총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 주도로 사업이 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군은 오수처리장 개선하기, 마을 산책로 및 꽃밭 조성, 벽화그리기 등 마을의 다양

한 특색을 담아 공동체 분위기를 회복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마을별 추진단을 구성, 마을 회의와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를 통한 주민들의 적극 참여로 9월 현재 28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18개 마을에서도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 주도로 사업이 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군은 오수처리장 개선하기, 마을 산책로 및 꽃밭 조성, 벽화그리기 등 마을의 다양



강진군 병영면 동삼인 마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2022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준비 박차 주민 삶의 질 개선...읍·병영면 주민설명회

강진군이 국가균형위 공모사업인 '2022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강진읍 송정마을과 병영면 동삼인 마을 주민 각각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사업 방향과 목적 설명을 설명,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농어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국비를 포함해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 안전확보,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지원, 주택 정비, 주민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승욱 군수는 "군민들에게 안정된 시설과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취약지역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선정돼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화순, 교통약자 이용료 인하 내달부터...상한액 1천원

화순군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 군은 10월 1일부터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요금 체계를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관내·관외 기본 이용 거리 2km까지 500원, 추가 1km당 100원의 요금을 내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관내 이용 상한액은 7,250원(군내버스 요금 적용)이다.

이중 관내 이용 상한액이 7,250원에서 1,000원으로 대폭 인하다. 관내·관외 기본·추가 요금, 관외 상한액(시외버스 요금 적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군은 교통약자에게도 1,000원만 내면 화순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는 '1000원 버스'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변경했다.

지난해 10월 1,000원 버스를 시행하면서 화순 지역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부담을 덜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광양 '배알도 별 헤는 다리' 개통 섬·포구·수변 잇는 해상 로드 완성

광양시가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중점 관광명승화사업' 마지막 단계인 '배알도-망덕포구' 간 해상로드 1교 '배알도 별 헤는 다리'를 최근 공식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된 '배알도 별 헤는 다리'는 길이 275m, 폭 3m 규모로, 2019년 3월 13일 첫 삽을 뜨지 2년 6개월 만에 웅장한 위용을 드러냈다.

'배알도 별 헤는 다리'는 공모를 통해 명명한 것으로 망덕포구 정병육가옥에서 보존된 운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을 모티브로 별빛 감성이 담백 담겼다.

별 헤는 다리는 곡선 램프를 도입한 국

내 최초 해상보도교로 경관 조망이 뛰어나고, 선박이 드나드는 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부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광양 유일의 섬 배알도는 망덕포구와 배알도근린공원을 잇는 낭만 플랫폼으로 탄생하는 한편 섬, 포구, 수변을 모두 잇는 아름다운 해상 로드를 완성했다.

광양시는 망덕포구, 배알도 섬 정원 등 섬진강권을 중심으로 가을 테마여행상품 운영, 언택트 걷기 행사, 버스킹, SNS 이벤트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영암 시종파출소, 합동 야간순찰

영암경찰서 시종파출소는 최근 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고구마·멜론 수확에 따른 농산물 저장창고 및 금융기관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에게 빈집털이 절도와 최근 극성화

부리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사례 등을 알리며 예방활동을 펼쳤다.

위주량 시종파출소장은 "범죄 취약지역 주변 경찰관 집중 활동, 서민침해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농협진도군지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

농협 진도군지부가 최근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도 홍보하고 입장권을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입장권을 기탁받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전달,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농협 진도군지부도 진도군 관내

농협 3개소와 함께 입장권 2,000매를 사전 예매해 농업인을 포함한 군민들과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강희식 지부장은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로 수목에 대한 국민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보성경찰서, 노인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

보성경찰서가 23일 보성을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성폭력 등에 관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인지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남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일상생활 중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성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보성경찰서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앞으로 치안서비스의 주 대상이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노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임관 경찰서장은 "어르신 안전하고 편안한 보성군이 되도록 노인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유치면변영회,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장흥군 유치면변영회는 제32회 유치면민의날·제17회 수몰애향제 행사 취소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최근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유치면민 대학생 자녀 3명, 재장흥 향우 자녀 1명, 재경향우 자녀 1명 등 총 5명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수몰민의 애환을 달래기 위한 기념품을

전 면민에게 제공해 수몰애향제 취소의 아쉬움을 달랐다.

곽석주유치면변영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행사가 취소됐으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밑거름을 된다고 생각, 올해 장학금과 기념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며 "고향을 위하고 나아가 나라를 짊어지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